

올바른 반려견 돌보기



만남



더불어 살기



헤어짐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반려견 만남

작은 식구와의



* 서울 가구의 22.2% ('23. 5. 30)



한해에 주인을 잃거나 버려져 유실, 유기 처리되는 반려동물이 무려 11만 마리가 넘는다*

유실·유기처리 반려동물

총 113,072마리

개 80,467마리
고양이 30,889마리
기타 1,716마리



* 2023년

② 구청의 유기동물 구조단이 24시간 구조보호하고

유기동물구조단

주인을 잃었거나 주인이 버렸거나



③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0일간 자치구 별 지정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여 공고한다.

○○구 지정 동물 보호센터

이런 이런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으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보호중인 동물



10일이 지나 20일 사이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 또는 기증도며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희망하는 분에게..



20일이 지나면 인도적으로 처리된다.

인도적으로 처리된다면?

고통없이 저 세상으로 보내주는 거야.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들...

그렇다고 나랏일을 하는 관청이 언제까지 유기견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유기견들은 보호소에서 병들어 죽거나(27.6%) 사람손에 의해 안락사(18%) 된다.



작은 가족을 돈 주고 사고파는 것도 인도적이라 할 수 없고

죄없이 죽어가는 유기견도 불쌍하고 가슴 아프다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먼저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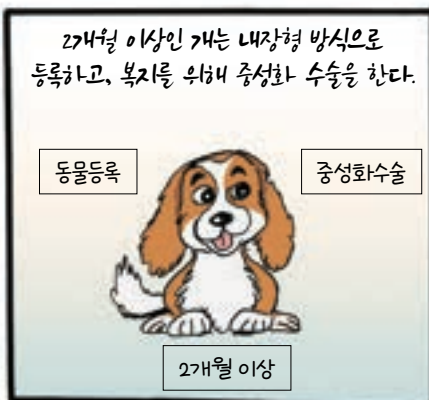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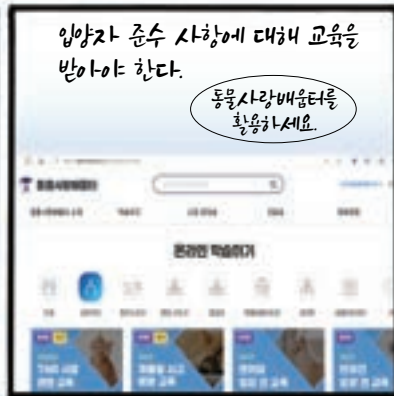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동물 복지 자원센터를 찾아가 보면 되겠네.



그대요. 우리 입양해요!

우리 모두 결정한 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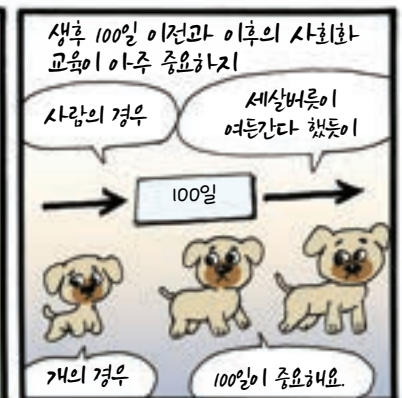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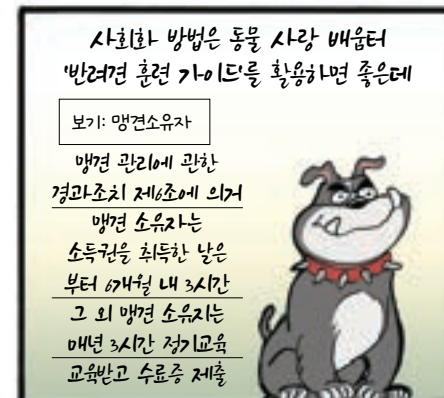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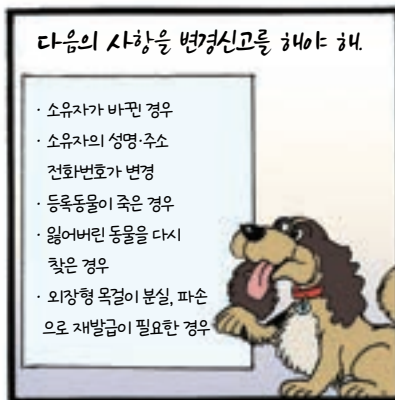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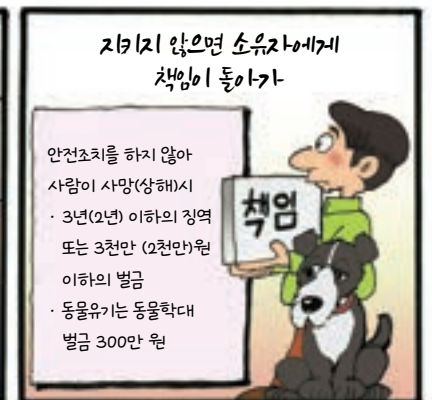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 동물정보를 작성하여 *

소유자 정보	반려동물 정보
· 이름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주소	· 중성화 여부
· 전화번호	· 품종
	· 털색

* 시·군·구청





반려동물과는 얼마든지 즐거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과의 산책이다.



반려견은 인간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고



인간은 반려견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사한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산책도 그중의 하나!



산책은 반려견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촉진하고



활동성과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체중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책은 반려견들에게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게 하고 다른 강아지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루함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행동과 사회적 건강을 강화하여



심리적 건강과 안정감에 필수적인 요소가 산책이다.



그래서 동물복지에 엄격한 독일에서는 모든 강아지 주인에게 산책의 의무가 주어진다.



인간에게도 적절한 운동이 건강의 절대 조건인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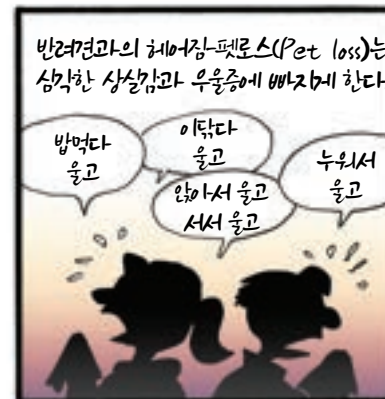
반려견들에게도 산책은 절대 빼뜨릴 수 없는 건강 유지는 물론 동물복지의 전제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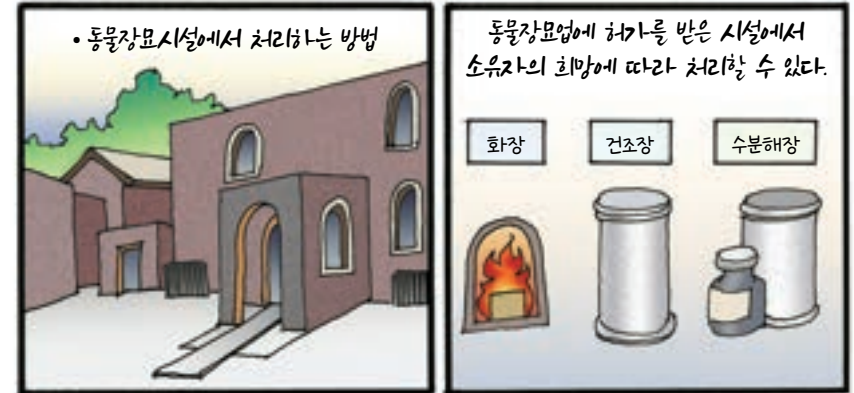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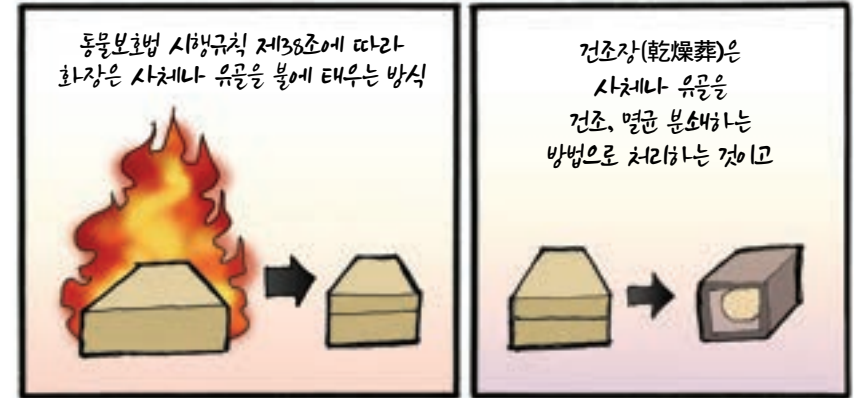
반려견
작은 식구와의

헤어짐





경기도 고양시 동물장묘처리장





반려 동물 추모관



